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 포럼)

7기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 **일시 : 2018년 6월 26일 (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 **주최 :** , 광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 (사)광주마당, (사)광주장애인미술협회, (사)대동문화재단,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사)오월어머니집, (사)청년문화허브,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협)플리마코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극단 연인,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문화공동체 한판 안다미로, 문화기획단 유별라, 문화아지트 에포케, 디자인컴퍼니 바비사인, 디자인주스, 스토리박스, 오월문화기획단 달_Comm, (주)쉐어하우스공명 진도북(춤)놀이보존회 내드름, (주)에스홀리데이, (주)엘리파이브, 청년문화꾼 (주)청년미래전략센터, (주)툴아이피1%공작소, 청년파티그룹 와이트랩, 파크인터네셔널

□ **주관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6·13지방선거문화정책연대

□ **후원 :** 광주광역시,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 프로그램

사 회 : 한 선(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표	▪ (청년문화허브 대표) ▪ 박 향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토론	▪ 김도일 (조선대학교 교수) ▪ 한지성 (문화공동체 한판 대표) ▪ 임인자 (독립기획자) ▪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목 차

1. 발 표 (1)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 ---------- 05

2. 발 표 (2) 박 향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 17

3. 토 론 (1) 김도일 조선대학교 교수 ---------- 41

4. 토 론 (2) 임인자 독립기획자 ---------- 45

5. 토 론 (3) 한지성 문화공동체 한판 대표 ---------- 51

6. 토 론 (4)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53

발표문 :

민선7기에 제안하는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 정책

정 두 용
(청년문화허브 대표)

민선7기에 제안하는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 정책

정 두 용 (청년문화허브 대표)

오늘 발표문은 민선6기 문화정책 평가보다는 민선7기 문화정책 제안에 방점이 있다. 다만, 민선7기 문화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 민선6기 문화정책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민선6기 문화 분야 시정목표는 <꿈꾸는 문화도시>이며, 문화정책의 큰 방향과 철학은 아래 6기 민선시장직 수행 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민선6기 문화전략 "꿈꾸는 문화도시"

(제6기 민선시장직 수행을 위한 보고서)

○ **21세기는 '지식, 정보, 문화'가 핵심 키워드**이다. 이는 **'하드웨어'중심에서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사회 발전의 추동력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광주·전남은 '예향'의 전통을 오랫동안 가꾸어왔다. 다양한 장르에서 위대한 예술가들이 탄생했고, 시민들도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능력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이러한 장점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데 활용해야 하며, 광주의 도시경쟁력을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 민선6기 문화행정은 타율에서 자율로, 규제에서 독립으로, 의존에서 책임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휘되도록 문화행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 시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는 것은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정책이며, 이를 통해 시민과 도시의 문화력은 더욱 증진된다. **관료중심의 문화행정이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에 기초하여 문화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우는 환경, 기반, 지원,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화와 인권, 평화와 예술이 새롭게 결합한 아름다운 빛고을을 창조하는데 시민의 지혜와 열정이 모여들 것이다.

구체적인 공약 및 이행도는 아래와 같다.

< 문화도시(27개 공약)> *2018. 2 기준 / 체육 부문 제외			
번호	공약명	추진상황	추진부서
1. 문화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 조성			
6-1-1	권리장전 선언		문화도시 정책관실
6-1-2	문화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이행후계속추진	문화도시 정책관실
6-1-3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기반 조성	이행후계속추진	문화예술 진흥과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견인과 연계 강화			
6-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사업 가시화	정상추진	문화도시 정책관실
6-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강화	이행후계속추진	문화도시 정책관실
6-2-3	문화교류팀 신설	완료	정책 기획관실
3.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산업육성			
6-3-1	아시아문화전당권 주변지역 문화예술클러스터 조성	정상추진	문화도시 정책관실
6-3-2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충장로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정상추진	문화도시 정책관실
4. ICT 융합클러스터 조성			
6-4-1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정상추진	문화 산업과
6-4-2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	정상추진	미래산업 정책관
6-4-3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정상추진	문화 산업과
5. 청년문화예술의 거점도시 조성			
6-5-1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정상추진	문화예술 진흥과

6-5-2	융합형 청년문화공간 조성		문화예술 진흥과
6.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6-6-1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정상추진	문화도시 정책관실
6-6-2	문화메세나 운동 전개	이행후계속추진	문화예술 진흥과
6-6-3	예술인 창작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정상추진	문화도시 정책관실
6-6-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이행후계속추진	문화예술 진흥과
6-6-5	문화예술 협동조합 육성	이행후계속추진	문화예술 진흥과
7. 전통문화 예술 지원 강화			
6-7-1	예향에 맞는 전통문화예술 지원 강화	이행후계속추진	문화예술 진흥과
6-7-2	전통문화의 산실 "서원과 향교"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이행후계속추진	문화예술 진흥과
6-7-3	전통문화예술 DB 구축 및 콘텐츠 발굴	이행후계속추진	문화예술 진흥과
8.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완료	문화예술 진흥과
9.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국내 대표 문화예술 관광명소 개발			
6-9-1	아시아문화전당권 주변 도심관광 트레일 개발	이행후계속추진	관광 진흥과
6-9-2	도심여행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광기반 구축	완료	관광 진흥과
6-9-3	광주 관광마케팅 컨트롤타워 구축	이행후계속추진	관광 진흥과
10. MICE 대표도시 육성		정상추진	관광 진흥과
11. 광주·전남·북·제주 연계 관광네트워크 구축		이행후계속추진	관광 진흥과

그런데 이렇게 민선6기 문화정책을 돌아보면 뭔가 고개가 갸우뚱거리지 않는가? 광주문화정책의 방향과 큰 틀도 충분히 공감되고, 개별 문화공약의 이행도도 높은 편인데 민간의 목소리, 언론의 평가,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종합해서 살펴봐도 대체적으로 광주 문화정책의 평가는 '미흡했다'이다.[1] 왜일까? 그 답을 '6·13 지방선거 문화정책 공동발굴과 제안을 위한 (가칭)광주 문화단체 총연대 모임 공개제안문'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광주 활동 모든 문화예술단체에 공개 제안 드립니다.

광주가 문화도시 맞나요?!!

"문화도시 광주? 근데 광주가 문화도시 맞나요?"
"문화예술인들은 열심히 일해도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죠?"
"문화예술? 그런 건 먹고 살만한 사람들만 즐기는 거 아니에요? 저랑은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예요."
"문화예술이 향유대상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는 없을까요?"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이런 질문들에 대해 광주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해보면 어떨까요? 문화도시 광주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문화 정책에 있어서는 모든 도시가 광주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 광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문화예술 단체들이 함께 모여 이번 6.13 지방선거 문화정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모임을 제안 드립니다.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 문화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삶, 지금 시대에 문화예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은 단체라면 어떤 곳이라도 환영합니다.

1) 민선 6기 문화정책과 주요 사업 진단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7년 12월 20일 개최된 포럼 <민선 6기 문화정책과 사업을 논하다>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질적으로 핵심은 시민들의 삶이 양적으로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돼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공공재로서 '문화인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지금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문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민선6기의 문화정책은 아쉽지만 시민들도, 문화예술인도, 광주 사회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1)]

이 같은 민선6기의 개선점과 성과를 수렴하고, 광주가 선언과 구호를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으고, 활동하기 위해 올해 3월 '6·13 지방선거 문화정책 연대'를 출범하게 되었다. 문턱을 없애기 위해 공개제안문을 통해 널리 알렸고, 총 40여 개의 단체가 함께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11번의 모임을 거쳐 민선7기 문화정책에 대하여 함께 의견을 나눠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민선7기 문화정책 방향과 10대 핵심 정책을 도출하였고 모든 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제안하였다. 한정된 시간에 시민들과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 나름의 한계가 있었지만, 시간을 가지고 사안별로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민관이 컨센서스를 이뤄 진행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본 포럼에서도 시민들의 많은 제언을 바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 정책>

❒ **민선 7기 문화정책 방향**

▲ 자율, 다양성, 협치가 근간이 되는 광주시 문화 행정의 전면적인 혁신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이 실현되는 도시

▲ 시민문화권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문화적 삶이 구현되는 도시

1) 물론 민선6기 문화정책의 성과들도 있었다. 출범 초기부터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에 기초한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시민아고라,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시민참여예산제, 광주도시계획2030 수립 등과 같이 시민들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형태부터 직접적인 정책반영에 참여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민참여를 이끌어낸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업을 진행하며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발생하였지만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움직임은 민선7기에서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 **10대 핵심 정책**

▲ 자율, 다양성, 협치가 근간이 되는 광주시 문화 행정의 전면적인 혁신

1. 문화부시장제 도입

2. 문화 협치 조례 제정

3. 문화 개방형 공직자 확대 및 문화기관 이사회 구성 개선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이 실현되는 도시

4. 문화예술인 사회혁신 일자리 창출

5.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 보장 조례 제정

6. 보조금 사업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7. 광주 예술가의 집 건립

▲ 시민문화권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문화적 삶이 구현되는 도시

8. 광주 문화행사 홍보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9. 각 구별 청년문화의 집 건립

10. 광주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 **10대 핵심 정책 추진의 필요성**

1. 문화부시장제 도입

○ 문화도시 광주의 문화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정치·사회적 변화의 능동적 대응 필요

2. 문화 협치 조례 제정

○ 광주시 문화정책 수립 및 집행의 상설적인 협치 시스템 필요

○ 광주시 문화행정 파트너로서의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역할 제고

3. 문화 개방형 공직자 확대 및 문화기관 이사회 구성의 개선

○ 문화전문위원 신설, 비엔날레재단 사무처장 및 문화예술회관 관장 공모

○ 광주시 문화기관 이사회의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

4. 문화예술인 사회혁신 일자리 창출

○ 시민의 삶과 일상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공공일자리 확대

○ 문화예술인 주도하고 참여하는 뉴딜 일자리 창출 필요

5.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 보장 조례 제정

○ 문화예술인의 창작 여건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

○ 사회 공공재인 문화예술 활성화로 시민문화권 확대

6. 보조금 사업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인의 창작과 기획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 책정

○ 보조금 사업의 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성화 실현

7. 광주 예술가의 집 건립

○ 예술가 · 기획자 · 시민이 소통하고 만나는 문화 공간 필요

○ 지역 문화예술의 도약과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향유기회 제공

8. 광주 문화행사 홍보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광주시 문화예술 행사와 프로그램의 통합 홍보 시스템 구축 필요

○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환경 구축

9. 각 구별 청년문화의 집 건립

○ 청년들의 문화적 삶을 디자인하는 생활 거점 공간 필요

○ 임기 내 각 구별 청년문화의집 순차적으로 건립

10. 광주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 여건을 확대하기 위한 거점 공간 필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격차 해소 및 보편적인 문화향유권 확대

<6·13 지방선거 문화정책 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사)광주마당,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 (사)광주장애인미술협회, (사)대동문화재단, (사)오월어머니집,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사)청년문화허브,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협)아모틱, (협)플리마코,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극단 연인, 디자인주스, 디자인컴퍼니 바비샤인, 문화공동체 한판, 문화기획단 유별라, 문화아지트 에포케, 스토리박스, 오월문화기획단 달Comm, 와사비,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쉐어하우스공명, ㈜에스홀리데이, ㈜엘리파이브, ㈜청년미래전략센터, ㈜툴아이피1%공작소, 진도북(춤)놀이보존회 내드름, 청년문화꾼, 청년파티그룹 와이트랩, 파크인터네셔널

본 발표문에서는 이번에 광주시장으로 당선된 이용섭 당선인의 답변을 첨부하니 참고 바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선인 답변>

❒ 10대 핵심 정책 ※ 해당 사항에 표시 요망

▲ 자율, 다양성, 협치가 근간이 되는 광주시 문화 행정의 전면적인 혁신

1. 문화부시장제 도입		ㅇ	반대		유보	
2. 문화 협치 조례 제정	동의	ㅇ	반대		유보	
3. 개방형 공직자 확대 및 문화기관 이사회 구성 개선	동의		반대		유보	ㅇ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이 실현되는 도시

4. 문화예술인 사회혁신 일자리 창출	동의	ㅇ	반대		유보	
5.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 보장 조례 제정	동의		반대		유보	ㅇ
6. 보조금 사업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동의	ㅇ	반대		유보	
7. 광주 예술가의 집 건립	동의	ㅇ	반대		유보	

▲ 시민문화권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문화적 삶이 구현되는 도시

8. 광주 문화행사 홍보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동의	ㅇ	반대		유보	
9. 각 구별 청년문화의 집 건립	동의	ㅇ	반대		유보	
10. 광주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동의	ㅇ	반대		유보	

❒ **유보의견**

3. 개방형 공직자 확대 및 문화기관 이사회 구성 개선

<의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방형 공직을 확대하고 문화기관이사회의 구성을 개선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구체적 직위(3개직위)를 지정하기보다는 문화행정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직위는 공모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5.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 보장 조례 제정

<의견>

광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을 확대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 방안으로 기본소득보장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한 발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발표문 :

민선6기 광주시 문화정책 주요성과와 민선7기 공약사항 정리

박 향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민선6기 광주시 문화정책 주요성과와 민선7기 공약사항 정리

박 향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Ⅰ. 민선6기 문화정책 주요성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 문화도시 기반 강화】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

❍ 문화전당 개관이 5년이나 지연되는 등 과거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로, 새 정부 대선공약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이 포함되면서 국정과제에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가 채택되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시효연장('26년→'31년 / 특별법 부칙 개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비 인상(20% 상향 / 문체부 종합계획 수정)

❍ 광주를 7개 문화권역으로 설정하여 문화전당의 파급효과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급변하는 문화지형과 4차산업혁명 등 최근 문화도시 트랜드를 반영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관점에서 재조정하여 5개 문화권역으로 재설정('17.12), 문화체육관광부 조성사업 종합계획에 반영('18.6)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13년부터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 시립미술관 등 12개 기관이 매월 운영하고 있는 광주문화기관협의회에 2018년 4월부터 시와 문화전당이 추가로 참여하여 공동 협력사업 추진과 현안 업무를 공유하고 매월 市-문화전당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2 문화전당 주변 관광 명소화·브랜드화

❍ 글로벌 문화행사로 매주 토요일 문화전당과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2016년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행사로 자리 잡았다.

- 총43회 개최('16~'18년) / 관람인원 76만명 / 968개팀 문화예술단체 공연

❍ 2017년 6월에 개최한 ACC 광주프린지 인터내셔널은 10만여명이 관람하는 등 광주와 문화전당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거리공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창작과 유통이 어우러지는 특화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상실된 기능을 예술가와 시민셀러, 상인이 어우러지는 참여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부활한 대인예술시장을 2016년부터는 매주 토요일 상설화하여 연간 30만명이 방문하는 광주의 대표 문화·관광 자원으로 성장토록 하고 있으며,

❍ 예술의 거리사업은 2015년부터 "나비야 궁동가자" 주제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매주 토요일 상설화 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프린지페스터벌→예술의거리를 연계하는 문화관광코스로서, 연간 7만명이 방문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대인예술시장, 2015년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추진실적

<대인예술야시장>

연도	예산액 (백만원)	프로그램 운영
2017	500	‣ 프로그램 43회 개최 - 방문인원 : 300,000여명
2016	500	‣ 야시장 프로그램 46회 개최 - 방문인원 : 337,245명
2015	670	‣ 야시장 프로그램 20회 개최 - 방문인원 : 300,000명
2014	500	‣ 야시장 프로그램 7회 개최 - 방문인원 : 81,000명 방문

<예술의 거리>

연도	예산액 (백만원)	프로그램 운영
2017	300	‣ 어여쁘다 궁동 22회 개최 - 방문인원 : 70,000여명
2016	380	‣ 나비야 궁동가자 20회 개최 - 방문인원 : 60,000여명
2015	300	‣ 나비야 궁동가자 23회 개최 - 방문인원 : 40,000여명
2014	300	‣ 문화시장 7회 1,200여명 ‣ 야외경매 7회 2,100여명 ‣ 전시회 10회 개최 등

❍ 이렇듯 문화전당과 주변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양림역사문화마을, 남광주밤기차시장, 동명동 카페거리, 광주폴리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통해 매력있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 무등산이 세계지질공원(지오파크)으로 인증('18.4월)됨에 따라,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의 수려한 경관, 가사문학, 누정 등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아우르는 남도피아 사업이 2020년 마무리되면 광주만의 특색 있는 생태와 남도풍류,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관광테마파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사업

❍ 도심의 중심부 금남로1가에 위치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흔적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한 전일빌딩은 1990년 후반 (구)전남도청의 이전과 함께 도심부 인구감소로 공실률이 상승하고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어

❍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전일빌딩을 활용, 문화전당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하면서 도심지를 전망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키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2016년 총탄흔적이 발견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4차례 걸친 전일빌딩 내·외부 전체 총탄흔적 존재여부 조사 결과('16.8~'17.3), 1980년 5·18 당시 총탄흔적 245발을 발견함에 따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계기가 되었다.

❍ 또한, 전일빌딩의 5·18사적지 지정으로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감안하여 탄흔 발견 공간 등의 원형을 보존하고 5.18정신을 담고 역사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해커톤을 개최, 시민 프라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문화전당을 배후 지원하는 IT 콘텐츠기업와 전자도서관, 시민생활문화센터, 남도관광 홍보마케팅센터 등의 입주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본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전당에서 파생되는 공연, 전시, 교육, 연구 프로그램 관련 방문객은 물론, 예술가와 시민들이 머무는 시민공간으로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지원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현황

❖ 사 업 명 :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 자원화 사업
❖ 사업기간 : 2016 ~ 2019년
❖ 위　　치 : 동구 금남로 1가 1-1번지외 3필지(전일빌딩)
❖ 총사업비 : 426억원(국비 130, 시비 296)
❖ 사업내용 : 전일빌딩 지하1F~10F 전일빌딩 리모델링
- ACC관광자원화사업, 투자진흥 지원시설구축, 전자도서관 조성 등

④ 국제 문화교류 도시 도약 발판 마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제7차 ASEM 문화장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5.9.4~9.26 부분개관, '15.11.25. 공식개관
- (ASEM 문화장관회의) '16.6.22~6.2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럽 . 아시아 53개국 문화장관.대표단 등 600여명 참가

❍ 문화예술 분야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저명한 문화예술계 인사를 초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상호 정보교류의 장인 아시아문화포럼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대회기간 : 2014년~2018년(매년 계속)
- 참 가 자 : 연평균 20국 500여명
  ※ '14년(한중일 및 11개국 1,000여명), '15년(24개국 508명), '16년(20개국 540명), '17년(17개국 522명)
- 행사내용 : 학술행사(기조발제, 전체회의, 특별회의, 논문발표 및 토론), 부대행사, 청년캠프(세계 대학생 참여)

연도	기간 / 장소	주 제		( )	주관단체
2014	5. 22. 전남대 용봉홀	**(Pre-2014 아시아 문화포럼)** 아시아 동반성장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와 연계)	300여명	2	
	10. 1. ~ 10. 2. 전남대 컨벤션홀	아시아의 문화융성과 동반성장	11개국 700여명		
2015년	11. 24. ~ 11. 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행사와 연계)	24개국 508명	2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년	6. 19.~6. 2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기술 그리고 창의성: 창조산업과 도시	20개국 540명	2	교류센터
2017년	11. 13. ~ 11. 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기술 그리고 창의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도시	17개국 522명	1	광주국제 교류센터
2018년	10. 31. ~ 11.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Pre-2019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문화,기술 그리고 창의성: 디지털기술과 문화도시의 미래	20개국 500명 목표	1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광주 사직공원 일대 통기타 음악을 콘텐츠로 한 광주국제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아시아 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공연산업 활성화 및 유료공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 대회기간 : 2014년~2018년(단년도 계속)
- 관 람 객 : 연평균 5,400여명, 관람객 지속 증가
  · '14년(4,000명), '15년(3,000명), '16년(6,800명), '17년(7,850명)
- 행사내용 : 시즌제 공연(여름, 겨울), 창작경연, 국내외 초청, 레코드 페어
- 입장권 판매 : 2년 연속 매진(목표액 : 50백만원)
  · (2016년) 티켓 매진, 유료관객 2,261명, 수익금 58백만원
  · (2017년) 티켓 매진, 유료관객 3,105명, 수익금 93백만원

❍ 미디어아트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인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의 2019년 광주대회 유치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를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게 할 것이다.

* ISEA :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nic Art

- 대회유치기간 : 2014년~2016년
- 대회개최기간 : 2019. 6월중 7일간(예정)
- 참가규모 : 30개국 1천여명 참가(목표)
- 행사내용 : 국제학술심포지엄, 전시 및 미디어아트퍼포먼스 등

❍ 아시아-유럽 창의혁신도시연대(CICA) 시장회의 유치로 ASEM 회원국의 창의혁신도시 간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교류를 확대하면서 도시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 CICA : Creative Innovation Cities Alliance

- 대회개최기간 : 2019. 10월중(예정)
- 참가규모 : ASEM 회원국 창의혁신도시 30개 도시
- 행사내용 : CICA 시장회의, 대학총장포럼, 참여도시 상공회의소 간 비즈니스 미팅, 참여도시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자·다자간 미팅 등

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 시민의 지식정보접근 격차 해소 등 도서관의 접근성 향상과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공공도서관 확충」및「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장기적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장기 확충계획을 수립하였다.

- 공공도서관 확충('14~'18년) : 3개관 확충완료(20→23개관), 4개관 추진 중 (서구복합커뮤니센터내도서관,상무소각장,북구복합커뮤니센터내도서관,광산구하남지구)
- 공공도서관 확충계획 수립('18~'22년) : 32개관(인구 4만5천명당 1개관 수준 OECD기준)

❍ 작은도서관을 마을단위의 복지문화센터 역할에서 시민의 커뮤니티복합문화시설로 육성하고자 '13년부터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 작은도서관 현황 : '17년말 438개관
- 작은도서관 지원 : 매년 9억원(매년 190개관 지원, 도석구입비, 운영비 등)

❍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지원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작은도서관 지원센터」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위원이 작은도서관 조성부터 장서선정, 자료정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운영과 발전방안까지 컨설팅하는 작은도서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 지원센터 컨설팅 현황('14~'17년) : 196건(조성 16, 운영 167, 행정 13)

❍ 민선6기 들어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추진과 함께 시민들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광주지역 23개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대출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사업과 「타관반납 서비스」사업 추진으로 이용자들이 집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대차를 위해 5개 구청을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상호대차 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작은도서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기 구축 : 남구, 서구(52개 공.사립작은도서관)
- 추진 중 : 동구, 북구, 광산구(28개 공립작은도서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지원】

1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 광주시는 2014년 12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16년까지 빛고을 시민문화관 일원에 미디어아트 콘텐츠 관광레저 기반 시설 구축을 완료하였다.

-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시설 : 빛고을 시민문화관(6개 공간 구축)**
- **홀로그램 극장 및 파사드, 미디어 놀이터, 디지털갤러리, 아카이브, 미디어 338**

❍ 이후 2017년부터 미디어아트 특성화 공간 구축을 위해 도시 유휴자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건립을 추진중이다. 미디어아트 플랫폼(AMT센터)은 현재 빛고을 시민문화관 주차장 부지로 쓰이고 있는 장소에 지상3층, 지하2층 규모로 건립 될 예정이며, 그 주변은 유네스코 미디어파크 공원으로 조성하여 야외무대 등 문화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플랫폼은 광주의 도심 속에 위치하여 광주의 창의인력과 창의자산이 세계와 교류하는 허브 공간으로써 광주의 예술발전을 이끌고, 문화산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건축물 설계를 위한 실시설계 공모를 추진 중이며, '19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이면 완공된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미디어아트 플랫폼(AMT센터) 조성

❖ 사업기간 : 2017 ~ 2020년(4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547㎡, 연면적 11,000㎡
❖ 사 업 비 : 290억원(국비 145, 시비 145)
❖ 주요시설 : 미디어아트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프리젠테이션룸, 미디어아트 살롱(카페, 시민강의 공간 등), 미디어아트 파크

2 광주시립오페라단 창단

❍ 지역 오페라계로부터 지속적인 시립오페라단 창단 요청 및 점차 증가하는 오페라 공연 수요로 오페라단 창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우리지역 공연예술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예술단체간 협연을 통해 공연 수준 및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주 시립 오페라단을 창단하였다.

- 시립오페라단 운영규모 : 최소 상임단원 (5명)
  · 예술감독 1, 단무장 1, 기획.재정 1, 홍보 1, 무대 1

❍ 시립 오페라단을 창단하면서 시립예술단 장르(교향악단, 합창단, 발레단 등)간 불균형 해소 및 창의적 문화예술도시 지향을 위한 오페라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 총 3회 공연(출연 638명, 관람객수 5,881명) ※'18. 4월 현재
  · '17년 창단공연(오페라 갈라, 출연 250, 관람객 1,722),
  · '18년 수시공연(헨젤과 그레텔, 출연 80, 관람객 1,161)
  · '18년 정기공연(아이다, 출연 308, 관람객 2,998)

❍ 광주 시립오페라단 창단은 열악한 재정과 환경에서 작품활동을 하여온 지역 오페라단과 우리 지역출신 외부활동 성악가간 역량결집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심체 역할을 하여 지역 오페라 장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 광주시는 국가·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통해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제공 및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지원 할 계획이다.

- **국가무형문화재 제33호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건립**
- **시무형문화재 제8호 광산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 현재 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부족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수관 부재로 전수 교육 및 연습 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전수 공간의 필요 및 체계적인 보존·계승시키고 시민들과 무형문화재의 활용 및 공유를 위하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광주 국가·시 무형문화재의 창의적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이끌고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권의 충족과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무형문화재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건축물 신축을 위해 '17년에 부지매입 및 설계를 추진 중이며, '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건립>

❖ 사업기간 : 2017 ~ 2018년(2년)
❖ 사업규모 : 건축면적 920.19㎡면적 1,151.83㎡(1동 2층)
❖ 사업장소 : 광주. 남. 칠석동317-1
❖ 사 업 비 : 4,700백만원(국비 2.350, 시비1.175, 구비1.175)

<광산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 사업기간 : 2017 ~ 2018년(2년)
❖ 사업규모 : 건축면적 350㎡면적 700㎡(1동 2층)
❖ 사업장소 : 광주. 광산. 산정동 696-1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시비500 구비50)

4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 광주·전남 상생 협력사업으로 호남학 연구 및 호남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한국학 호남진흥원」을 건립하였다.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자료실 및 수장고를 구축하여 한국학 문화유산의 확산 및 보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호남지역 한국학의 산실로 자리잡았다.

❍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지역에 다량 산재한 고서, 고문서, 서화 등 한국학 자료들이 훼손·망실·도난 등 소멸 위기에 있어 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어, 민간에 방치된 한국학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등 한국학 관련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지역의 한국학 중심기관으로 호남지역의 한국학 관련 문화유산 보존·계승과 교육, 국내·외 연구기관 자료 제공 및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학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가고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현황

❖ 설 립 일 : 2017. 9. 22.
❖ 위　　치 : 광주지방공무원 교육원 3~4층
❖ 주요시설
- 3층 : 자료실, 연구원실 등
- 4층 : 원장실, 회의실, 수장고, 연구원실, 총무부, 전산실 등

❖ 주요기능
- 호남한국학 기초자료 수집·정리 및 간행 추진
- 근대 사상 생활 문화자원 번역 추진
- 호남권 선현문집 국역 사업 추진
- 호남권 한국학 허브 구축사업 추진
- 한국학 강좌 및 천년기행사업 추진
- 한국학 학술 저술 지원 추진

5 광주비엔날레, 세계5대 비엔날레로 성장

❍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집단적 상처에 대한 문화적 치유, 남도 특유의 문화예술 전통을 현대적으로 특화하기 위하여 1994년에 창설된 광주비엔날레가 어느덧 2018년 24주년을 맞이하였다.
- 제10회('14) : 터전을 불태우라(주제), 38개국 103작가 참여, 35만 명 관람
- 제11회('16) : 제8기후대(주제), 37개국 121작가 참여, 41만 명 관람
- 제12회('18) : 상상된 경계들(주제), 40개국 153작가 참여예정

※ '세계5대 비엔날레 선정'(아트네트-세계적 권위의 미술 인터넷 매체)

❍ 광주비엔날레는 회를 거듭할수록 유명작가 위주의 전시회에서 탈피하여 일반시민, 학생, 특정 커뮤니티, 지역작가 등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4년에 35만 명, 2016년에 41만 명이 관람하는 등 대중적 관심과 관람객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 제10회('14) : 나도 비엔날레작가, 시민참여 프로그램(주말콘서트, 아트마켓)
- 제11회('16) : 인프라스쿨, 월례회, 포트폴리오 리뷰, 나도아티스트 등
- 제12회('18) : 광주작가 특별전, 월례회, 포트폴리오 리뷰 등

❍ 특히 민선 6기에는 광주비엔날레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비엔날레 7대 혁신방안 마련(2014), 광주비엔날레 비전과 발전전략 추진(2015) 등을 시행 하였으며, 광주비엔날레 비가시적 성과연구(광주전남연구원, 2017), 문체부 문화영향평가 참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등 광주비엔날레의 유.무형 성과를 연구하였다.

❍ 이제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비엔날레간 유대와 교류증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매회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비엔날레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엔날레 개최시마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광주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세계적 비엔날레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뉴욕타임즈, 2014)
- '사회, 역사적 의미 잘 살린 광주비엔날레'(르몽드, 2014)
- '인상적 전시들,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 조명'(이코노미스트지, 2014)
- '상상력을 자극하는 비엔날레로 기획 목표 감탄'(아트네트, 2016)
- '복잡.야심찬 주제 아래 환상의 세계와 현대미술 동시반영'(프리즈, 2016)
- '광주의 명물은 광주비엔날레'(a.m, post, 2016)

6 문화예술 축제의 전국화 . 세계화

❍ 국내.외 유수 갤러리 유치를 통해 우리 지역에 국제규모의 미술시장을 형성하여 예술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광주국제아트페어」가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국가 및 작가가 대폭 늘어나고 우리 지역 유망 신진작가들을 미술시장에 소개함으로써 지역의 예술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등 지역 예술시장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 기 간 : 매년 9월 (2010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 참 가 : 6개 국가, 69개 갤러리, 670여 작가(2017년)
- 내 용 : 본전시, 기획전, 부대행사 등

❍ 광주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인 정율성의 삶과 음악성을 기리고자 개최하고 있는「정율성 선생의 기념축제」역시 해마다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하여 수준 높은 클래식 향연을 펼쳐 명품 클래식 축제로 자리잡았고, 음악을 통한 한.중 문화연대 구현으로 우리시의 국제교류 협력기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 정율성 음악공연, 성악콩쿠르, 정율성 사진전, 한중전통 교류공연, 세미나 등
- 광주행사 4회, 중국행사 3회

❍ 국창 임방울선생의 본고장에서 국악 신인 발굴 등 국악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하고 있는「임방울국악제」는 짧은 개최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국악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4회 1,700여명 참가, 210명 수상, 21,200명 관람/수상자 해외공연(75명)
- 판소리, 기악, 무용, 시조 등 국악경연, 전야제, 임방울 판소리 장기자랑 등

【문화콘텐츠 밸리 조성 사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1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 40여년이 경과되어 낙후되어 있는 송암산업단지에 1단계「CGI센터」를 구축한데 이어, 2단계「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광주의 대표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본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송암산업단지 일원을 미래 핵심성장 동력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기지로 조성하여 아시아문화전당과 빛가람혁신도시, CGI센터 권역 클러스터를 잇는 삼각벨트를 형성하여 광역권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2015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16년 송암산단 산업단지계획 변경고시, 2017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2018년도에는 토지보상 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 광주가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전력 투구하고 있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사업이 완료되면 첨단과학과 문화가 융합되는 문화창조 융합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연관 인프라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청년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발효과 74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46억원,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595명**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 조성기간 : 2016 ~ 2020 (5년) / 위치 : 남구 송암산단 일원
❖ 규　　모 : 부지 17,913㎡, 연면적 28,150㎡
❖ 사 업 비 : 1,041억원(국고 356, 지자체 500, 민자 185)
❖ 사업내용 : 창조콘텐츠 제작지원센터 건립(3D, UHD, CG활용 기획.제작 작업),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플라자 건립(콘텐츠 전시, 마케팅 지원), 콘텐츠 체험사업(야외스튜디오, 체험테마파크, 팸투어 운영 등)

2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 운영

❍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문화콘텐츠 제작·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 2012년 결성한 제1호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이 190.4억 규모로 조성되어 영화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외지기업의 광주이전과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위해 제2호 투자조합 결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 제1호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투자실적 : 80개 프로젝트 351억원

❍「제2호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은 2015년 4월 제2호 투자조합 투자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광주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1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2017년 6월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 지금까지 4개 프로젝트에 19.42억원을 투자하여 운영중이며,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3 우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장경쟁력을 갖춘 우수 문화콘텐츠 발굴 외 문화산업의 창작기반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WAF시상 207건, 파일럿제작 114건, CG활용프로젝트 26건
- 창업 80개사, 역외기업유치 11개사, 일자리창출 606명

❍ 특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작지원 환경으로 지역에서 창업한 토착 기업의 점진적 성장과 함께 내실 있는 기업의 이전으로 성과도 많아져, 2017년에는 스튜디오더블유바바(주)의 "매직 어드벤쳐"와 (주)스튜디오버튼의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가 대한민국콘텐츠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지원업체 주요수상실적]

업 체 명	작 품 명	수 상 명	시 상 기 관
몬스터스튜디오	브레드 이발소	삿포로 국제 단편 영화제 대상	삿포로 국제 단편 영화제
		도전 K-스타트업 3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한민국 창업리그 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디오더블유바바	매직 어드벤처	대한민국콘텐츠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스튜디오버튼	강철소방대 파이어 로보	대한민국콘텐츠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벤쳐캠퍼스 중소기업청장상	중소기업청
스튜디오피쉬하이커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	2017 베스트 클린 콘텐츠 대상	클린콘텐츠국민 운동사업본부
중앙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린다의 신기한 여행	2017 카툰커넥션 어워드	CARTOON (유럽애니메이션필름협회)

4 문화콘텐츠산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

❍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콘텐츠 창작자에 대해 창업 이전단계부터 창업이후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을 유치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역의 유관기관을 활용, 지역의 잠재적 예비 크리에이터(창작자)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 사업장소 : 광주영상복합문화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사업내용 : 신기술 중심의 콘텐츠 창·제작 및 사업화 지원
- 지원실적 : 예비창작자 발굴(61팀), 스타트업 지원(36팀)('16~'17)

❍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스마트벤처캠퍼스('16~'17), 창업도약 패키지('17~'18) 사업을 추진하며,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교육과 멘토링을 하고, 투자유치 및 마케팅 지원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지원실적 : 매출액(726억원), 고용인원(296명), 투자유치(64억원)

【남도의 품격이 담긴 매력적인 관광도시 구현】

1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개

❍ 1951년부터 45년 동안 군의 '포 사격장'으로 사용되며 황폐화된 어등산 지역에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적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재개되었다.

- 위　　치 :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원(유원지)
- 면　　적 : 417,531㎡ (12만6천평중 – 11만9천평만 분양)
- 사업기간 : 5년
-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시설구성 :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 2005년 테마파크와 숙박시설, 골프장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였지만 군의 불발탄 제거작업 지연 등으로 민간 투자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논란 끝에 2016. 12월 골프장 일부 준공이 승인되었으나 핵심시설인 유원지 조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 이에, 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민관위원회 및 중소상인 대책위를 수차례 개최하여 2017년 12월 시민.중소상인 단체와 합의안을 마련하고, 2017년 12월 28일 유원지 개발에 참여할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다.

❍ 앞으로 시는 관광단지 조성 목적에 맞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관광단지 개발을 재개하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우리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광주 미래 먹거리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 근대 서양식 건축물을 비롯한 선교유적, 오래된 도심 숲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양림동 일원을 정비 및 자원화하여 역사.문화이야기가 풍부한 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단계 사업인 선교사 기념공원 조성 및 선교사 묘역 정비, 우일선 선교사 사택 보수, 김현승 시비가 있는 문학 소공원 조성, 근대사립학교 의료원 기념관 건립, 양림산 숲 조성, 미디어파사드 등 관광자원화 개선사업을 완료하였다.

3단계 사업 중 마을주차장과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전시공사 및 이강하미술관 개관('17. 7.)은 완료하였으며, 역사문화길 2단계 조성사업 및 광주정신문화관(최홍종기념관) 건립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 1단계 사업 : 순교자 기념공원 조성 및 묘역 정비, 기념테마공원, 문학소공원 조성, 우일선 선교사 사택보수 등
- 2단계 사업 : 근대사립학교 의료원 기념관 건립, 양림숲 조성,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개선사업 등
- 3단계 사업 : 주차장건립,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동체회복사업 등

❍ 순교자 기념공원 및 문학 소공원 조성, 양림산 정비 등을 통해 마을주민, 종교인, 외부 관광객들에게 명상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구간(0.9km)에 대하여 도보로 여행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도보로 양림동을 만끽하고 있다.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조성

❖ 사업기간 : 2009 ~ 2018년
❖ 위　　치 : 남구 양림동 일원 - 약 20만㎡
❖ 총사업비 : 254억원(국비 127, 시비 127) *민자 (53억원)는 별도
❖ 사업내용 : 선교유적과 생태 숲 복원으로 테마형 역사문화마을 조성

3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추진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호남권 관광발전 파트너십을 형성, 상호 정보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호남권 관광진흥을 위하여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를 발족하였다.

-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
  - ▶ 구성 : 30명 (시.도, 관광협회,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등)
  - ▶ 운영 : 회장 시.도 윤번제 / '15.(광주)→'16.(전북)→'17.(전남)→**'18.(광주)**
- (개최) 정기회(년 1회), 수시(안건 발생시), (실무협의회) 시.도 관광과장으로 구성 운영

❍ 2017. 3월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 실무회의에서는 2018년이 현재의 전라도 명칭이 사용된지 천년이 되는 해이기에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千年)을 활용한 「전라도 방문의 해」를 3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하여 전라도 천년사업의 성과 확산 및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하여 다채로운 사업 추진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함께 추진하였다.

- 베트남, 일본 등 국내.외 공동 홍보활동 : '17. 3. ~ 12
- 공동홍보물(전라도천년시간여행) 제작 및 홍보 : '17. 9. ~ 12
- 2017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17. 9. 26.
- 「전라도 방문의해」 선포식 개최, 홈페이지 개설 : '17. 11.10
- 방문의 해 수서역 홍보관 운영 : '18. 1. ~ 3.
-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전라도 방문의 해' 기념공연 : '18. 2. 22.
- 전라GO! 모바일 스탬프 투어 : '18. 4. ~ 11.

❍ 향후에도 광역 관광화사업 및 공동 홍보정책을 통한 새로운 어젠다의 발굴로 광주.전남·전북이 상호협력하여 서남해안시대 새로운 관광축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 2018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18. 9월중

Ⅱ. 민선7기 문화정책 공약사항

≪기본방향≫ 도시전체가 문화적으로 재편하여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 광주 컬쳐 유토피아」 선포 (살아 숨쉬는 광주 만들기)

NO	공 약 명	비고
1	**전통시장 내 문화·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확대** - 전통시장 내 또는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을 위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장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시장 내 문화 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확대	
2	**온리원(Only One) 발전전략을 통해 국제적 관광 명소화** -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발굴 육성하는 온리원(ONLY ONE) 발전 전략을 통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	
3	**광주특색(예향, 의향, 미향, 전남 자연환경)과 결합해 상품화, 브랜드·산업화하여 관광명소 육성** - 의향 광주의 정의로움, 예향 광주의 문화예술, 미향 광주의 맛깔스러운 음식과 전남의 천혜 자연환경을 결합,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광주만의 일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창출	
4	**원천소재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창작자 등 협업체계 구축, 브랜드 작품 제작** - 신창동 선사농경문화, 마한·백제문화, 음식문화, 5.18민주화운동 등 원천소재를 바탕으로 인문학자와 문화콘텐츠 창작자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브랜드 작품 제작	
5	**첨단 실감콘텐츠산업 대표도시로 도약** - 송암산단에 첨단실감클러스터를 조성하여 AR, VR, MR 등 가상콘텐츠, 홀로그램 등 미래오감 콘텐츠개발 중심지 육성	
6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유치)** -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연구원)을 설립하여 융복합콘텐츠 연구 개발	
7	**군공항 이전부지 국제적 테마파크 조성** - 군공항 이전부지에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제적 테마파크(세계 유일의 놀이시설) 조성	

NO	공 약 명	비고
8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조속히 추진** - 광주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	
9	**(가칭)광주전남관광공사 설립** - 전라남도와 광주가 공동 출자하는 광주전남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프로그램, 관광숙박, 관광지 개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	
10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인근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MICE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11	**일신방직 일대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무등야구장과 연계하여 관광 명소화** - 근대공장 건축물을 활용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산업 클러스터 조성 - 기아챔피언스필드, 무등야구장 등 스포츠 문화를 기반으로 한 '베이스볼 엔터테인먼트' 관광거점 조성	
12	**아시아문화전당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 문화 핵심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과 주변지역(동부경찰서, 구 적십자병원)을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수도에 걸맞는 도시로 재도약	
13	**광주 상징 역사적 조형물 설치** - 시민공모를 통해 광주를 상징하는 역사적 조형물을 설치하여 국제 관광 명소로 육성	
14	**동명동 일대 걷고 싶은 특화거리, 디자인 창의교육공간 조성** - 동명동 일대를 '광주다운' 멋(한옥, 공예)과 맛(한식)을 지닌 걷고 싶은 특화거리로 명소화하고, 디자인분야 창의교육공간으로 조성	

NO	공 약 명	비고
15	**송암산단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융합** - 송암산단은 문회콘텐츠산업을 융합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16	**다양한 문화시설, 고유하고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 도시 곳곳에서 연중 개최되는 문화행사, 풍부한 문화산업과 일자리, 시민들의 높은 문화행사 참여도 등 광주만의 모습, 느낌,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광주를 문화적으로 재편** - 경관. 도시. 건축 등 도시공간과 시설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문화적으로 디자인 - 보도, 승강장, 벤치, 간판 등 가로시설물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담아 설치 - 광주관문인 송정역과 버스터미널에 고유의 문화상징을 설치하고 체험공간 마련	
17	**도시 곳곳 연중 문화행사와 거리축제가 열리는 문화난장 조성** - 전문미술행사인 광주비엔날레는 성격이 맞는 시민축제를 개발 결합시켜 국제적인 문화축제로 발전 - 충장축제, 김치축제, 프린지페스티벌, 미디어아트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행사를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소규모 청년 예술공연단, 길거리음악과 퍼포먼스, 시민문화 예술동아리 육성 등을 통하여 생활공간 곳곳에서 전시. 공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 확충	
18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연계성 제고, 맞춤형 운영체계 조정** -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 및 기능 조정	
19	**시민들이 즐겨 찾는 킬러콘텐츠 생산 (문화전당)** - 시민들이 즐겨찾는 킬러콘텐츠를 생산하고 대중이 관심 갖는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확대 ※ 市-문화전당 간 협업을 통해 킬러콘텐츠 제작	

NO	공 약 명	비고
20	**아시아문화 체험공간 확충 (문화전당)** - 아시아문화를 직접보고 체험하는 공간을 확충하고, 국내 아시아인들의 참여와 역량 제고 방안 마련	
21	**금남로와 광주천의 문화예술화** - 금남로와 광주천에 문화예술을 입혀 문화전당권의 핵심활동 공간으로 활용	
22	**문학관 건립** (문학유산 계승 및 문학인들의 창작 지원)	
23	**역사박물관 건립** (광주의 정신과 역사를 전시하고 학습)	
24	**국악당 건립** (판소리와 국악 상시 공연, 시민교육과 체험의 장 제공)	
25	**광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아트 투어리즘 활성화** - 광주의 정의로움, 풍부한 문화예술자원, 남도음식문화 그리고 전남의 자연풍광을 엮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하여 아트 투어리즘을 활성화	
26	**문화부시장을 임명하여 문화행정시스템 확보** - 문화부시장을 임명하여 문화행정의 창의성, 전문성, 일관성을 제고하고 통합적 시각에서 문화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은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문화행정시스템 확보	
27	**5.18민주화운동 문화예술콘텐츠로 제작, 광주정신 전국적 확산** -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문화예술콘텐츠로 제작하여 광주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	
28	**남북소리명창대전을 매년 남북한 교차 개최** - 남도민요와 북한 서도민요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 소리명창 대전'을 매년 남북한 교차 개최	

토 론 문

문화시대 문화의 힘을 위한 광주

김 도 일 (조선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21세기 패러다임은 많은 도시의 변화사례를 통해서 도시의 총체적 발전도 문화 예술적 토양에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적 활동이 가져오는 유대와 신뢰는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함께 시민과 예술인들이 주체적이고 자유롭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문화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최근 도시 문제에서 문화의 역할이 부각되면서'문화발전',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문화민주주의', '지역과 도시',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정책의 역할도 커지고 있고, 문화정책에도 기존의 틀이나 체제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2. 새로운 문화패러다임의 구축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문화도시 정책

문재인 정부는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으로 문화도시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색 있는'문화도시[1)]'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매년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자체 대상, 5~10개 문화도시 지정하고 단기적으로 2019년 5개 내외, 2022년까지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1) 문화도시 추진목표는 문화적 시민각성을 통해 도시문화 정체성 발현,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으로 미래지향적 도시성장 및 발전기반 마련,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회 활성화 및 지역자치 기반 강화 등.

문화도시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형식은 다르지만 추진목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시하는 바가 크다. 광주시민이 광주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자긍심만큼 이나 모든 도시는 특별하며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이나 광주문화정책에 있어서도 문화도시정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수도'를 만든다는 경쟁주의나, 우리는 다르다는 배타적 선민의식으로부터 벗어나 문화상호능력의 배양과 지향성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역 간 관계도 경쟁보다는 존중이며, 여기에 문화 간 대화 능력을 통해 상호문화도시와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정책의 기조가 필요하다.

2) 새로운 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

민선 7기의 문화정책의 방향은 1. 자율, 다양성, 협치가 근간이 되는 광주시 문화 행정의 전면적인 혁신, 2.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이 실현되는 도시, 3. 시민문화권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문화적 삶이 구현되는 도시이며 이에 따른 10대 핵심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 문화 행정의 전면적인 혁신은 동의되는 정책방향이다. 박근혜정부 문화행정 파탄의 원인이 부패한 정치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패한 정치권력에 영혼과 성찰 없이 유착된 관료주의와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언제나 눈앞의 성과를 외치지만 정작 민주주의, 창의성, 삶의 질 등에서는 무기력한 관료체제가 바로 문화정책의 진정한 걸림돌이었다.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혁신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문화부시장제 도입과 문화협치 조례 제정 등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광주시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예술행정과 예술인과 광주시민과의 문화예술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에 의한 권력적 상하관계를 재단, 행정, 시민, 예술가 및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수평관계,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상의하달형에서 네트워크형, 행정방식의 명령복종 관계에서 대동관계로의 전환, 참여 주체들의 자발성, 협동성 및 유대감을 바탕으로 기존의 관성과 타성으로부터 벗어난 조직풍토와 체제 형성의 구축 등 새로운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발전이 필요하다.

3) 예술생태계 복원을 위한 청년예술가 지원

민선6기에 청년문화예술의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청년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과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단계인 문화기관 취업이나 단선적이지만 지역의 문화사업이나 축제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문화역량을 사용할 기회마저 미흡하다는 점이다.

문화인력에 대한 경력단계 혹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문화인력의 자생력과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인력의 고용불안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복지제도의 완결성 및 보장성을 확대하는 선제적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민선 7기의'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이 실현되는 도시'의 주요 정책은 환영할만하다.

지역의 주체적 문화역량이 있어야 지역문화 격차 해소와 중앙의 문화 정책의 종속으로 부터 벗어나 지역의 문화 분권과 문화자치가 가능하다. 광주문화도시의 청년문화일자리 창출과 고용은 광주를 바꾸는 힘이며, 이는 예술생태계의 복원과도 깊은 연광성이 있다. 예술계의 자생성을 담보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청년예술가 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시장 촉진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나가며

본 토론문은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문화 환경과 삶의 여건에 주목하여, 문화정책에도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전제하면서,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문화도시 정책과는 도시 간 경쟁보다는 상리공생적 관계에서 문화상호능력의 철학적 기저의 필요성, 둘째 정책수행이전에 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계의 생태계 복원과 예술 생산의 선순환적 구조를 위해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몰려오면서 공공과 민간의 구분을 넘어 새로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적 접근과 종합적인 정책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민선6기 문화정책의 아쉬움,
민선7기에 바라는 문화정책 및 문화민주주의

: 존립, 그리고 광주를 바꾸는 문화예술, 그 실천과 가능성을 기대한다

임 인 자 (독립기획자, 소년의서 대표)

2014년 여름, 홍성담의 <세월오월>의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전시가 당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절망적이었다. 광주비엔날레의 30주년 특별전에 초대된, 특히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회적 발언으로서의 작품이 광주비엔날레라는 세계적인 예술 플랫폼에서 그리고 5.18민중항쟁을 거친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니 통탄할 일이었다. 거기에는 광주비엔날레 담당 큐레이터의 자기 검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조직적인 사찰과 압력, 그리고 광주광역시 시장의 제가에 이르는 복합적인 문제가 담겨 있었다. 예술에 대한 자율성이 무너지고 국가에 의한 검열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했다. 국가의 지시에 순응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독립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국가폭력과 범죄행위로 촛불이 지나서야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 일을 결국 승인한 광주광역시장은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및 아시아문화전당의 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자장 속에서 대규모 정책 사업들이 이어지며, 의향, 예향, 미향이라는 광주 시민들의 자부심과 기대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5.18에 대한 검열과 민주 인권에 대한 표현의 탄압으로 파행이 이어졌다. 잘 알려진 5.18 마지막 항쟁지인 (구)전남도청의 훼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민주인권에 대한 노골적인 두려움을 표출했고, 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의 분리된 위계 및 조직 내의 억압적인 분위기는 결국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시민과 예술가들과 전혀 소통하지 못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검열뿐만 아니라, 또한 관주도의 일방향적인 정책 수행이 진행되면서, 시민들과 괴리 상태에 놓였다. 몇몇의 사업 주체들 이외에는 실질적인 정책의 밑그림과 사업 수행과정을 알기 어려웠다. 지역 예술가들이 주체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었다. 이를 견제하며

(특별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광주광역시 역시 거의 적극적인 실천과 행보보다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사실상 아시아문화중심사업과 아시아문화전당의 파행을 방치했다.

문화정책의 수행과 집행에 있어서는 관주도로 이어지면서 자발적인 현장의 생태계는 무너졌다. 광주문화재단은 예술생태계와 지역문화정책의 입안자이자 실행처로서 많은 예술가들과의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정책의 비전 수립과 수행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 구성 및 조직 체계가 광주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수행보다는 광주광역시에서 하달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양상이다. 기획기능과 담론을 생성하는 생산적인 방식의 지역문화진흥사업, 그리고 지역 예술가를 파트너로, 지역 예술가들의 주도적인 활동에 대한 지지와 응원으로서 정책적 뒷받침이 아닌 정부 주도형 정책을 수립하면서, 예술가들은 타자화되고 지원사업의 수혜자로서 정책의 대상일 뿐 주체가 되지 못했다.

협회단위의 광주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광주국제영화제는 정산 등의 문제로 파행이 이어져 결국 개최하지 못하고 있고, 광주아트페어는 미협 중심의 아트페어 개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며 전체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한 가지 반가운 것은 광주국제영화제의 파행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아무런 정책적 지원이나 영상정책마저 전무함에도 그러한 현실을 스스로 개선하고자 젊은 영상인들을 중심으로 '광주영상인연대'가 꾸려져 자발적이고 독자적인 행보를 시도해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광주아트페어를 개선하기 위해 광주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들 개개인들의 실천적인 모임들이 스스로 견제역할을 하는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주시립극단 전 예술감독의 횡령사건의 경우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과에서의 지원사업이 5년 넘게 횡령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방치되었고, 작년말 예술인들의 고발에 의해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다.

이런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박향 실장님의 발제문 <민선6기 광주시 문화정책 주요성과와 민선7기 공약사항 정리>를 보면, 위에 언급한 문제들의 논의는 어디에서도 보이질 않는다.[1)]

우리는 지난 과오와 잘못들로부터 무엇을 질문하고 사유할 것인지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의 비전과 실천은 어떠한가. 우선 광주광역시 행정직제상 현재 '문화도시광주' 비전에 걸맞는 직제는 마련되어있지 않다. 문화부시장체계[2)] 마련이 절실하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인권평화협력관', '지역공동체추진단' 등 상위 아젠다 그룹 조직에 포함되어 실천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제는 문화체육관광실 산하 문화도시정책관 문화예술진흥과 등으로 이루어진 공무원 조직으로만 이루어져있다. 민간 전문 협력관 제도로 변화하여 전문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민관협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민관협력체제의 상징인 각종 위원회는 실질적인 정책 수행과 실천을 담보로 하지 않아, 비전만 난무한 실정이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체계 마련과 실천이 요구된다.[3)] 특히 문화부시장 문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로부터 자율적이면서도 시정에 있어서 책임성을 담보한 문화부시장의 역할은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실천적인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옥상옥 구조로 지시, 감독기관이 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 역시 필요하다. 문화부시장의 위치는 시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활동과 의견을 뒷받침하는(Servant) 역할이라는 점, 즉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또한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축으로서 광주문화재단은 광주광역시의 사업 수행처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광주광역시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 또한 광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예술가들은 정책수혜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할 파트너이자 주체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관주도, 기관주도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4)] 지난겨울, 광주문

1) 또한 몇가지 논의는 추후에 이어지기를 기대하는데, 기초예술과 관광, 기초예술과 문화산업, 기초예술과 시민문화의 확산 등의 관계와 개선 과정에 대해서는 심도한 정책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별도의 포럼이 이어지길 제안한다. 또한 이벤트 중심의 시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재점토가 전면적으로 필요하다. 상시적인 문화정책과 이벤트는 분명 다른 차원이며 예술의 거리 나비야 궁동가자, 프린지페스티벌 등의 중복 및 경쟁력의 미비 등은 별도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6.13 지방선거 문화정책 연대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 정책>
3) 임인자, <현장에서 바라 본 지방정부 문화정책 혁신 : 예술가의 존립, 그리고 광주를 바꾸는 문화예술, 그 실천과 가능성을 기대한다>, 창, 2018년 6월
4) 위의글

화재단에서 수행한 <예술인백인보프로젝트>를 주목해본다. 광주의 기초예술의 취약성과 예술가들의 존립 근거 마련을 위한 예술가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광주문화재단의 실천적인 대안이나 활동이 아직 2018년 사업에 반영되거나 수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단지 정책보고서용으로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1] 특이사항은 여러가지 언급해야겠지만 그중에 하나 꼽자면 예술가들의 수입 부분에서 미디어아트의 도약 부분이다. 아마도 전국적으로도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미디어아트도시를 표방하면서 광주문화재단에서 정책적으로 레지던스 사업 수행, 공간 제공, 상시적인 전시장 및 미디어아트 페스티벌까지 이어지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연극, 미술, 다원, 문학, 음악, 전통 등 다각적인 정책적인 설계와 실행이 지속된다면 정책적인 효과도 분명해진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예술과 예술가들의 현재 위치를 재점검해야한다. 기초예술에 대한 정책 수립, 예술가 및 단체의 존립의 문제와 존립 기반 마련을 위한 민-관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2] 청년(신진)예술가 지원 사업 특화, 1회적인 지원사업의 형태에서 벗어나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가시적인 성과나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집중하며, 연구와 리서치, 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지원이 절실하다. 일방향적인 관주도의 정책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민간이 활성화하고 예술가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주도할 때 문화도시광주의 비전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광주를 바꾸는 예술, 예술가의 존립을 더욱 고민하는 광주광역시가 되길 바란다.[3]

---

1) 왜 미디어아트인가, 왜 미디어아트에만 정책적인 지원 편중현상이 생기는가 하는 예술가들의 자조적인 목소리를 들을때가 많다. 그것은 미디어아트는 안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초예술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2) 정책적 성과를 보인다고 제시하는 양림동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정책적으로 남구청, 남구관광공사, 문체부 등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정책 지원이 수행되고 인프라가 마련된 것을 살필 수 있다. 또한 대구의 경우 대명예술거리는 소극장 1~2단체가 연합하여 민간에서 활성화하고, 예술가의 의지와 활동이 소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점차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3) 위의 글

나는 광주 예술가들의 가능성과 의지를 믿는다. 예술이 시대에 말을 걸고 광주를 변화시키는 사회혁신의 힘이 있음을 믿는다. 공공성의 가치를 수행할 수 있는 예술의 힘을 믿는다. 광주의 예술가들은 치열하게 시대와 함께 살아왔다. 시대와 호흡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뚜렷한 예술세계를 구축해나가는 예술의 모습은 다양하고 다면적이다. 그 모든 과정에는 수많은 땀과 눈물이 있다. 그러나 광주예술가들의 존립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초예술의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 되고 있다. 이벤트만 난무한다. 관지향이다. 청년들은 기초예술로 모이질 않는다. 광주문화정책과 기관들은 기획기능을 상실하고 관리 감독자로만 남아있다.

예술의 가능성에 대한 인정과 응원이 절실하다. 예술가 역시 정책적 지원과 응원이 자신의 성과뿐만 아니라 공적 행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협력과 협치는 소수에 의하거나 1:1 방식의 대행체계가 아닌 다면적인 것이어야 한다. 예술은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는 개인적인 산물임과 동시에 사회적 공공재이다.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어야 한다.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왔던 지역예술가들에 대한 존중,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생존 가능한 예술가의 존립의 보장, 신진 및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특화, 중견 예술가들의 지속 가능성, 삶의 뿌리에서 함께 호흡하고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의 문화예술, 관주도가 아닌 민간의 활성화, 여성 및 소수자와 배제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꽃피는, 지역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삶을 횡단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혁신을 요구한다. 삶에 뿌리를 둔 예술의 형식과 태도는 다양하게 존재해야 한다. 문화도시비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 변화를 위한 재구성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1] 예술가들이 행복하면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행복하면 예술가도 행복하다.

1) 위의 글

참여와 소통이 중심이 되는 민간주도 거버넌스

한 지 성 (문화공동체 한판 대표)

민선6기 광주시 문화정책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민선7기의 문화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민선6기의 문화관련 시정방향에 담긴 주요내용은 ▲타율보다는 자율로 문화행정 보장 ▲규제에서 독립으로 의존에서 책임으로 전환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 ▲참여와 소통을 기초하는 문화민주주의 실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 이였다.
하지만 위 내용과는 다르게 현실은 이와 정반대였고 특색 없고 방향성을 잃은 문화정책 안에서 정체성도 모호한 이벤트성 문화행사와 축제만 넘쳐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민선6기 문화정책 중 프린지페스티벌을 통해 주요쟁점을 검토해 본다. 2016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심으로 문화, 예술, 관광이 융.복합된 도시문화관광 밸트 구축의 필요성을 프린지페스티벌에 담으려 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프린지페스티벌은 어떠한가?

지역 문화예술계가 중심이 되어야 할 프린지페스티벌은 지역 문화예술계와 소통하고자 했던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한 번의 회의가 있었지만 개막을 몇일을 앞두고 진행 된 자문회의는 대안제시가 아닌 일회성 이벤트 같았다. 그리고 더욱 황당했던 것은 정례회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사업기간동안 3회 정도 자문회의로 추진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전부다. 문화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정식회의가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례의 일들만 봐도 광주시가 문화를 대하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프린지페스티벌이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만들고자 했다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단계부터 문화전문가, 지역문화예술계, 광주시민, 청년예술인, 청년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과 수없이 많은 토론과 공론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단계가 필요했다.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문화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 문화예술계와 시민들 간 소통, 문화예술계와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예술이 공공선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문화형성의 주체가 되는 민간주도 거버넌스를 이제는 시행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민선6기에서 실패했던 문화행정을 민선7기에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광주시 문화정책수립과 집행단계에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을 문화행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는 비엔날레, 문화재단 등과 같은 문화기관 이사회에 여성, 청년 등과 같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로 패쇄적인 행정을 변화해야 한다. 셋째는 문화예술지원 보조금 사업 등에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문화예술계의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힘써야 한다. 넷째는 문화전문행정가를 개방직으로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과 일관된 방향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광주시의 문화정책 방향이 변해야 한다. 관료주의, 공급자 중심의 문화행정도 시급하게 없어져야 할 폐단이다. 문화예술인들과 민간단체를 사업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화정책 입안 과정부터 진행상황, 결과까지 공유해야 한다. 민간을 주체로 세워 권한을 대폭 이행하는 것이 광주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면모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 활성화, 광주시가 해야 할 일은?

김 기 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2.0시대'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그것의 핵심은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활성화 문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이를 담아낸 계획이나 구체적 실행 움직임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굳이, 몇 가지 영역에서 일고 있는 변화를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문화전당장 직무대행 체계가 문화전당 운영과 관련해 광주시 등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토론회나 협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문화전당 운영에서도 지역협력사업 비중이 높아졌다. 2018년 문화전당 4대 전략사업 중에서 최우선 순위가 '지역문화예술 수요 대응 등 지역협력'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과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이 기획한 '문전성시 오픈 스쿨'의 장소로 문화창조원 공간 제공, 지역 문화예술계와 문화예술콘텐츠 기반 킬러 콘텐츠 공동기획 등은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과 개방이 문화전당 내부의 전체 조직문화와 운영방침으로 정착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지역의 생각들은 '위만 바뀌면 뭐하냐!'이다. 문화전당의 문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문화전당이 보다 개방적이고, 지역과 함께 하려는 협력의 자세가 조직전체의 문화와 운영원리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변화된 활동 모습이다. 지난 4월 출범한 조성위원회는 지역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이름뿐인 위원회'라는 딱지를 벗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2018년부터 사업 종료기한인 2023년까지 조성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성위원회는 형식적인 심의가 아니라 계획안의 내용과 사업의 주요 쟁점을 면밀한 검토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이다.

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운영의 책임성, 사업의 역할 부여 등에서 행정적인 분할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협력과 개입이 가능한 선은 문체부 및 문화전당과의 상호신뢰와 협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율, 분권, 협치를 문화정책의 핵심운영 가치와 원리로 두고 있다는 것을 근거해 본다면, <아특법> 상의 협력의 내용과 의미를 실질적인 문화협치로 구체화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민선 7기를 기점으로 문화도시조성사업은 문화전당 운영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전당의 효과를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전당조성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 있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광주시가 해야 할 일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 있는 연차별 실시계획 마련, 주요 사업에 대한 적절한 지방비 확보,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전당, 지역문화예술진영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문화협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유능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광주시-문화전당-전라남도 정례협의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콘텐츠 협력체계 구축 회의',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등 기존 협력 조직이 문화전당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를 논의하고 공동의 협력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이 조성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특별법> 제4조의 규정대로 '분야별 시민사회협약(시민단체 간 협약)'을 통해 조성사업의 연차별 계획이나 관련 이슈가 활발하게 의제화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

넷째, 문화전당과 광주시 사이의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관련 장치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광주시와 문화전당이 지역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전당 안에 '문화도시조성협력단'을 신설하고, 시청 담당자를 파견해 광주시-문화전당-시민사회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조성사업 및 문화전당 관련 조직 구성이나 인사의 경우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문화전당의 활성화에서 새로 출범하는 민선 7기가 대응해야 할 주요 과제는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문제이다. 민주평화교류원은 문화전당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현재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원칙으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포함한 복원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용역 연구기관을 찾고 있는 중이다. 건물의 공간 및 외형에 관한 복원설계와 5·18 당시의 활동상황을 표현할 전시·재현 등의 콘텐츠 구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광주시-시민사회단체-5·18 관련 당사자 등이 함께 복원의 해법을 찾고 있지만, 합리적 의사소통의 부재로 복원 작업의 절차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전남도청 공간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에 근거해 원형 복원의 기준과 대상, 내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청에 대한 원형을 보여주는 기록 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화된 사료 이 외에 당시 도청공간을 경험했던 항쟁의 참여자 등의 이미지화된 기억을 통해 원형의 기준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술이나 이미지화된 기억의 결과를 객관화된 기준으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것은 용역 연구팀의 역할보다는 지역사회 내부에서 공론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야 한다. 지금은 원형을 보여주는 기초사료를 찾는 작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복원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선 7기 광주시 문화 리더십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문화부시장제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 광주에서 문화의 정책적 위상과 행정의 집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도시운영 전반에서 문화가 중요한 콘텐츠이자 작동원리가 되도록 통합적인 문화행정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핵심가치인 분권과 자치, 그리고 정부의 새문화 정책인 <문화비전 2030>의 3대 가치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등을 고려한다면, 민선 7기 광주시 문화정책은 문화행정의 이념과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특히 문화자치가 중요하다. 문화자치는 좁게는 문화행정 분야에서 지역 자치의 실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만드는 자율적인 문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이다. 생활단위 시민들이 문화적 공간을 만들고 스스

로 운영해 나가는 문화자치를 통해 시민의 문화역량은 향상된다. 그 힘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문화도시 환경조성과 문화도시 기반조성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선 7기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활성화는 지역차원에서 시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도시)비전과 문화정책의 재구축 작업과 분리될 수 없는 일이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18 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 포럼)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18년 6월 26일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18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